

MC교육 주효... 전남 특성화고 취업률 2년 연속 전국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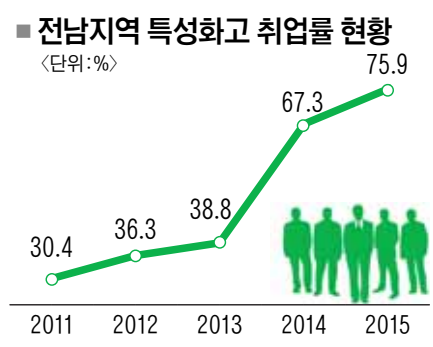
<기업맞춤형>

<76%>

31개교, 136개사와 협약
기업체 직원이 실무교육도
2013년 38%서 67%로
작년부터 취업률 치솟아
공무원 70명, 대기업 98명
228명 양질의 일자리 찾아

전남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이 75.9%를 기록,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3일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재)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 하이파이브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취업률 정보공시에서 전남이 75.9%로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교육부 하이파이브 자료는 2014학년도 졸업자를 기준으로 2015년4월1일자 정보공시자료로 공개된 특성화고 취업률을 온라인으로 집계한 결과다. 전남지역 특성화고 취업률은 지난해부터 치솟고 있다. 지난 2011년 30.4%에서 2012년 36.3%,

2013년 38.8%로 차분히 오르다가 지난해 67.3%를 기록, 전년보다 2배 가까운 무려 28.8%포인트 상승했다. 올해는 이보다 8.6%포인트 상승한 75.9%를 기록했다. 전남지역 특성화고를 졸업하면 4명 중 3명은 취업한다는 의미다. 교육부 취업자 인정기준은 4대 보험 가입자,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면서 소득이 있는 자로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자, 영농업종사자, 가업승계자, 학업·취업 병행 등으로 취업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등이다. 이는 전남 특성화고의 정체성을 살린 취업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성과라는 분석이다. 전남도교육청은 기업맞춤교육(MC·Mu-



tual Creative) 등 취업 역량을 강화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MC교육은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2012년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특허출원한

시스템이다. 학교는 기업체가 요구하는 실무교육과정을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과정을 마치 학생에 대해 기업체는 취업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이다.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기업체 직원이 직접 실무교육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전남지역 특성화고 31개교와 기업체 136개사가 MC협약을 맺었다. 또 중기청 특성화고 지정 최다 운영(11교), 교육부 공모 글로벌 현장 학습의 학교 및 교육청 단위 선정,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등으로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 취업 선배와의 대화, 우수 취업처 발굴을 위한 예산 지원, 중견기업 CEO

특강, 유망 강소기업 투어 등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취업의 질을 나아졌다. 취업자 중 공무원 70명, 공공기관과 대기업 429명이 합격하는 등 취업의 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선미 미래인재과장은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이 높은 것은 특성화고 교사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공동체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신 덕분이다"며 "양질의 취업처 발굴 및 취업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은 3일 교육청 4층 중회의실에서 '2015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송원여고 '나의 생각 프레젠테이션대회'

송원여자고등학교(교장 최윤수)는 최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제8회 나의 생각 프레젠테이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학급별 발표대회를 통과한 33팀이 학년별 예선대회에 참여했고, 본선대회에는 10팀이 진출했다. 본선에 참가한 1학년은 ▲장난이 부러진 비극 ▲소수 아닌 소수를 위한 신의 선물, 적정기술 ▲원해요? 음아 없는 세상 ▲프랑켄슈타인 ▲만들어낸 질병, AD-HD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2학년은 ▲컴퓨터에서 튀어나온 세상 ▲IS, IS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0.5평의



기적 ▲독도, 일본에게 답한다 등을 주제로 관객과 소통했다. 최윤수 교장은 "세계 속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선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학생·교직원 U대회 참여, 광주고에 4·19 역사관 건립 등 공감

광주시-시교육청 3년만에 교육행정협의회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3년만에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학생과 교직원을 적극 참여시키기로 하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3일 교육청 4층 중회의실에서 '2015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공동의장인 윤장현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한 협의위원 13명,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날 시정과 학교교육 협력을 통해 상생의 자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긴밀한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제안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청은 광주시와 자치구, 산하기관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

록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진로체험처를 지원·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시민과 학생들이 광주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현장체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광주고 부지 내 '4·19 민주혁명 발상지 역사관' 건립 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시장은 "학생들의 올바른 진로 선택을 돕는 한편 4·19 역사관에 대한 재정 지원은 이날 안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타당성 등을 심의한 뒤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학생·교직원들의 광주U대회 참여와 바른운전 부모 서약 실천운동, 체험·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추진 등 7개 안건을 제안했고, 교육청은 이를 모두 수용했다. 장 교육감은 "'더불어 사는 광주, 행복한 시민',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라는 기치 아래 학생들이 행복한 광주교육을 이룩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순천청암고 '전남상업경진대회' 종합1위

순천청암고등학교(교장 김종구)가 최근 별교상업고등학교에서 열린 '2015 전남상업경진대회'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전남 22개 상업계열 특성화고 389명의 학생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순천청암고는 금메달 3개, 은메달 5개, 동메달 6개를 획득,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종목별 우승은 회계분야 순천효산고, 비즈니스영역 한국향만물류고, 정보활용능력 순천청암고, 소풍물디자인 나주상고, 창업아이템 병영상고, 금융실무 여수정보과학고, ERP 순천청암고·별



교상고, 경제골든벨은 목포여상이 차지했다. 입상한 학생들은 오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전국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전남은 전국대회에서 2012년 전국 2위, 2013년 3위, 2014년 4위를 거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글로벌현장학습 사업단' 선정

3학년 8명 3개월간 독일 현장학습

광주 유일의 마이스터고인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교장 홍방희)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단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전국에서 2개 사업단을 선정하는 이번 공모에는 전국 44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광주자동화설비공고는 지정 공모제(독일·스위스)에 응모해 4월 중순 1차, 5월 중순 2차 평가에서 잇따라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글로벌 현장학습 학교사업단에는 8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학교 측은 3학년 학생 중 8명을 선발해 9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3개월 간 독

일 이절론시의 수공업협회와 다국적 기업인 그로헨사 등에 파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졸업생 4명은 마이스터의 본고장인 독일 다국적기업 KHS사에 취업해 독일 마이스터자격 취득에 도전하고 있으며, 올해 선발된 학생들 중에서도 독일 현지에서의 해외 취업과 독일 마이스터 자격 취득에 도전하는 학생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홍방희 교장은 "마이스터의 본고장인 독일 현장학습을 통해 글로벌 직무역량과 어학능력을 갖춘 마이스터를 양성해 자동화설비 분야의 해외취업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자동화설비공고 학생들이 지난해 독일 이절론시 수공업협회 등에서 글로벌 현장 학습을 하고 있다. <광주자동화설비공고 제공>

광주 대안교육지원센터 오늘 문 열어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 예방과 다양한 대안교육을 지원하는 광주 대안교육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광주시교육청은 4일 오후 2시 광주시 남구 주월동 광주과학고에서 광주 대안교육지원센터 개소식을 연다고 3일 밝혔다. 대안교육지원센터는 옛 광주과학고 별관을 리모델링해 마련됐다. 연면적

1816㎡ 규모로 1층은 센터가 들어오고 2~3층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 있던 급관교실이 통합 이전해 대안교육을 원스톱 지원하게 된다. 대안교육지원센터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공약 사업으로, 학교 및 지역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예방과 다양한 대안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인, 진·통·신·대·교·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062) 227-7575